

사람과 마을 문화 이어준 고갯길



계림령 · 조령 · 이화령

월 1회 연재

백두대간 숨결 듣는다

> 4 <

높고 험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음은 서로의 왕래가 없었을 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맥으로 막혀있다 하더라도 길은 열리고 문화는 서로 왕래하기 마련. 아무리 거대한 산 이 땅을 가로막아 하더라도 그 산을 넘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있는 법이다. 양쪽의 문화가 서로 왕래하기 쉬운 곳을 골라 또는 능선이 낮아져 넘어다니기 편한 곳을 택해 길을 낸다. 이 길이 산맥을 넘을 때 '재'라 한다. 재는 분수령일 때 영(嶺)이라 하며 작은 재를 치(峙) 또는 현(峴)이라 한다. 남한 쪽의 백두대간에는 모두 72개의 고갯길이 있다. 이중 47개는 포장도로이고 25개는 비포장길이다.



◇인간은 산맥을 넘어 또다른 땅으로 문물을 교류하며 살아왔다. 백두대간의 남한쪽에는 72개의 재가 형성되며 산맥으로 단절된 지리적 여건을 극복했다. 자동차 전용도로 인 이화령은 문명시대 백두대간의 새로운 모습이다. 지금은 이화령 터널공사도 한창이다.

속 리산을 거쳐 소백산에 이른 대간의 열맥은 문경권 내에 대미산과 포암산을 비롯해 부봉, 조령산, 백화산, 회양산, 대야산 등 수많은 산자락을 빚어 산국을 이룬다. 그 산자락을 지리한 세 개의 고개는 백두대간을 관통하며 경상도와 충청도를 잇는다. 그 중 하나는 고구려의 불교문화가 신라로 처음 전해지던 길목인 계림령(하늘재)이며, 다른 하나는 조선시대 영남과 그 북쪽을 잇는 영남대로의 길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오고간 조령이며, 또다른 하나는 신라국도 3호선이 뚫려 새로운 교통로로 부각된 이화령이다.

■미륵과 관음의 땅 있는 계림령

충북의 충주시 미륵리와 경북의 문경시 관음리를 잇는 계림령은 신라가 한강유역에 진출하기 위해 신라 아달라왕 3년(156)에 개척한 길이다. 삼국~통일신라~고려시대에 걸쳐 한반도의 남북축을 잇는 주요 도로의 기능을 했던 계림령은 조선시대에 새재가 뚫리면서 잊혀지기 시작했다. 새재에서 불과 4km 떨어진 계림령에는 하루종일 인기척도 없다. 1,800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길이지만 길가엔 별다른 유적이 남아있지 않다. 사건지식 일일이 길을 오르며 그저 한심한 시골산길일 뿐이다. 고개정상에조차 역사에 대한 아무런 안내문없이 '하늘재 520m'라는 표시판만이 달랑 서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걸로 드러난 외모가 허술해도 이 길을 감회없이 지나갈 수는 없다. 남진하려던 고구려와 북진하려는 신라가 이 고개에서 첨예한 대결을 보였으며, 고려 태조 왕건도 후백제를 칠 때 이 길을 거쳐갔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시대 강화도 선원사에서 조성된 팔만대장경이 해인사로 옮겨질 때도 이 길을 지났다고 한다. 대장경은 강화도에서 남한강을 타고 월악산 입구까지 거슬러 올라와 이 고개를 넘어 문경을 지나 유곡(楸谷)에서 낙동강을 타고 해인사로 옮겨졌다고 한다.

경북 문경의 관음리일대에는 마애반가사유상, 석불입상, 석불좌상, 5층석탑 등이 출토되어 있다. 재 너머 미륵리 쪽을 향해 서 있는 불상들은 신라인들의 염원이 형상화돼 조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충북 충주시의 미륵리는 새로운 땅을 갈구하는 신라인의 희망의

땅, 곧 미륵의 세상인 율화세계인 것이다. 월악산과 주흘산 사이 사방이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아늑한 분지인 미륵리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큰 절터가 남아있다. 사람들은 지명을 따 '미륵리사지' 또는 이곳에서 발견된 백돌에 새겨진 글자에 따라 '미륵대원(彌勒大院)' 등으로 부른다. 87년 사적 317호로 지정된 미륵리사지는 70년 대개지만 해도 관련 사학자들에 의해 한 일반인들에게 매우 낯선 곳이었다. 76년 수안보온천과 연계한 문화유적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주변을 정비하던 중 지대석, 주춧돌, 건물지 등의 유구가 발견돼 주목받기 시작했다.

미륵리사지에서는 지붕은 불타 없어진 채 석굴암을 본따 만든 듯한 석굴 안쪽으로 마치 분을 바른 듯 얼굴만은 하얀 미륵부처님(보물 96호)의 신비스런 미소가 반긴다. 절터에서 만난 문화기행안내자 이교재씨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나라가 망한 한을 품고 금강산으로 들어 가던 길에 누이인 덕주공주는 월악산 덕주사를 창건하여 남향한 임박에 마



◇미륵리 마을을 상징하는 미륵리사지 미륵불입상(보물 96호).



◇관음리 익사여래입상(문화재자료 136호).

계림령 1800년 역사...팔만대장경도 지나

조령 영남의 관문...유생 왜사신등 애용

이화령 국도 3호선 뚫려 새 교통로 부각

애불을 조성했고, 태자는 이곳에 석굴 사원을 창건하고 불상은 북쪽의 덕주사 마애불을 바라보게 했다는 전설을 들려준다. 지역주민들은 이 전설을 굳게 믿고 있지만 불상의 조성양식은 고려초이다. 따라서 왕건이 고려를 세우려 고 박건의 기상을 나타내기 위해 조성했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 남아있는 석굴에는 본존불로 모셨던 미륵불 외에 이 본존불을 정엄하기 위해 새긴 여래좌상, 이불명좌상, 삼불좌상, 반가상 및 사자상, 도깨비상 등이 석굴벽 등에 남아있다. 그리고 경내에는 5층석탑(보물95호), 3층석탑, 팔각석등, 방형석등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의 돌거북 등이 남아 당시의 웅장함을 말없이 전해주고 있다.

관음리는 불교문화가 융성하던 신라~고려시대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오갔고 길따라 사찰과 숙소 등이 밀려있던 문화의 요지였다. 지금은 문경쪽 절반을 말끔히 포장해 반쪽만 옛길로 전락

하고, 불교문화재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 관음리일대의 불상과 석탑양식은 향로와 촛대가 놓여 있어 아직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지역주민들의 불심을 엿볼 수 있다. 일제시대때 머리가 잘린 채 발 한가운데 쓰러져서 있는 석불입상을 마을주민들이 일으켜 세워 시멘트로 보수한 이후부터 농사가 잘됐다는 한 마을주민의 이야기가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새들도 쉬어넘는 문경새재

계림령이 공로(公路)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열린 길이 바로 문경새재(조령)다. 그 옛날 나는 새도 쉬어 넘었다고 하는 새재는 지금도 걸어서 넘어야 한다. 10km가량의 비포장

도로에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웬만한 관광지라면 갈 때 마다 차량공회로 시달리기 일쑤인데 경적소리에 수시로 길 옆으로 비켜서야 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고 반나절가량 절경을 만끽하며 걸을 수 있는 길이 남아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와있는 새재의 기원은 이렇다. 왕건이 전한의 군사를 무찌르기 위해 하늘재를 넘어 문경으로 갔다가 새재 남쪽 진입로에 있는 관감천에 이르러 길이 막혔다. 마침 토끼 한 마리가 계속 사이로 달아나는 것을 쫓다가 길을 널민한 곳을 발견하고는 바위를 잘라 길을 냈다. 이로써 새재가 뚫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려 때는 죽령이 중심로가 되고 계림령이 보조로가 됐으며 새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다. 새재가 영남지방의 관문으로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다. 중앙집권을 위한 조선왕조는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에 X자형으로 9개 대로를 국도로 설치했으며 그중 제4로가 새재를 지났

다. 그후 조선왕조 5백년동안 이 고개는 영남지방에서 한양으로 향하는 사람과 문물, 왜국사신 등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임진왜란때는 왜군들이 이 재를 순식간에 넘어 충주방에서 신허정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불교유적 풍성한 새교통로 이화령

새재는 몹시 높고 험해 1925년 일제가 차가 다닐 수 있는 신라로를 내면서 옛길이 돼 버렸고 이화령이 새로운 교통의 요충지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수안보에서 문경을 넘는 3번국도가 관통하는 이화령 주변에도 많은 문화유적들이 있다. 3번국도가 지나가는 원곡리 도로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이불명좌상(二佛名坐像·보물 97호)이 있다. 암벽을 뚫어 감실을 마련해 조각한 이불명좌상은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법화경》 견보탑봉에 나오는 석가여래와 다보여래를 조형화한 것이다.

백두대간의 산자락이 드리운 문경방에는 연원이 오래된 유서깊은 사찰도 많다. 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만 해도 회양산 봉암사, 주흘산 해곡사, 사불산 대승사, 운양산 김봉사 등이 있다. 봉암사는 9세기말 신라의 지증대사가 절터를 둘러보고 '중의 거처가 되지 않으면, 도둑의 소굴이 될 곳'이라고 예견한 곳이다. 구산선문의 하나인 회양산문으로 한때 3천명의 스님들이 도를 닦았으며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 정진 의 끈을 늦추지 않는 청정수령도량이다. 산문이 굳게 닫혀 일반인들은 물론 불자들도 출입하기가 어렵다. 경내에는 창건자인 지증대사의 적조탑과 비, 정진대사의 원오탑과 비, 3층석탑 등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길은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 문화와 문화를 이어준다. 길도 인간처럼 세월의 흐름에 따라 태어나고 사라짐을 거듭한다. 하늘에서 새재로, 새재에서 이화령으로 옮겨간 길의 역사는 앞으로 끊임없이 존재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새로운 터널길이 이화령아래로 뚫리고 있다.

글=임연태·윤기석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7대째 망명이가마 있는 김정옥씨



"150년 선조 솜씨 끓을 수 없지요"

관음리 중점에는 눈에 띄는 가마가 하나 있다. 망명이 가마. 1백50년이나 된 가마다.

96년 7월 중요무형문화재 제 105호 사기장으로 지정된 김정옥(57세)씨의 가마이 대를 이어 오는 망명이 가마의 현장이자, 관음리 가마에서는 김정옥씨의 조카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김씨는 문경을 진안리 새재와 이화령으로 갈라지는 길목에 새로 쌓은 망명이 가마(영남요 0581-71-0907)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김정옥씨는 7대조인 김취영으로부터 김공옥-김영수-김낙집-김준희-김고수를 이어 7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

“조부(김운희, 일명 김문경)는 하루에 8백40여개의 막사기를 빚어 내는 초인적인 작업량으로 도공들에게 전설적인 인물로 회기도 했었습니다. 선조로부터 불려받은 비법으로 망명이 가마를 빚아 구워내는 그의 사기는 일품이었죠. 망명이 가마는 길이 25cm 가량의 한쪽은 굵고 한쪽은 가는 진흙덩이를 뭉쳐 박은 6칸짜리 가마인데 지금은 관음리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선조의 비전을 18세때부터 전수받은 김정옥씨는 흙을 만지는 일의에는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집스런 사기장이다.

그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광화문 선곡미술관에서 마련됐다.

■갈평리 5층석탑 제자리 찾아주자

취재진 관음리서 '지대석' 발견

문경을 갈평 출장사무소에 있는 갈평리 5층석탑(경북도 유형문화재 185호). 1936년 일본인들에 의해 서울로 옮겨졌던 것을 지역분자들이 되찾아 현 위치에 안치했다. 1층기단 감석의 모서리와 상륜부가 일부 파손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고려초기 석탑이다. 여러 자료에는 이 석탑의 지대석 이치가 지하에 매몰돼 있다고 적고 있으나 사실은 원래의 탑이 놓여있던 관음리에 남아있다.

마을주민들의 제도로 찾아간

곳은 관음리 신경숙씨의 사과밭. 취재진이 신씨의 안내로 지대석이 놓여있다는 곳의 흙을 살짝 벗겨내니 2m 정도의 정방형 지대석이 나타났다. 좀더 깊게 파보니 두께는 25cm가량 되며 그 아래에 다시 이층의 지대석이 땅을 덮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일대가 신라시대의 관음사가 있던 자리였던 만큼 석탑이 제자리를 찾아야 함은 물론 명칭도 '관음사지 5층석탑'으로 불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들은 별다른 관심이 없다.



◇갈평리 5층석탑.

용성스님 어록

보리(菩提)는 불각중생에 대각이요 무명중생에 대경명이요 이혹중생에 대도요 무지중생에 대지혜이니 이 대각심인(大覺心)을 허공에 띄운즉 혼적 이 없고 불위에 찍은즉 광시 있다가 없어지고 공이에 찍은즉 그대로 나타나도다. 일체중생을 이러한 대각심인으로 교화(教化)할 지이다.

대성사(583-1475) · 대각사(765-0972)
경주 천통사(0561-748-8815)



◇고려시대에 조성된 원곡리 이불명좌상은 석가여래와 다보여래를 조형화한 보기드문 마애불상이다.